DAY 37 · 4부 조심할 것

'베꼈다'는 말의 뜻이 왜 흔들렸을까 — 저작권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10월 13일

예전엔 결과물만 봤지만, 이제는 무엇으로 배웠는지까지 따져.

한 줄로 말하면

1. AI 이전에는 '베꼈다' 를 **결과물이 얼마나 닮았나**로 따졌어.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됐거든.

2. AI 이후에는 질문이 하나 더 붙었어 — **만들기 전에 남의 작품으로 배운 것**은 괜찮은가. 결과물이 안 닮았는데도 다투는 일이 생긴 거야.

3. 이건 아직 **나라마다 답이 다르고 큰 재판도 진행 중**이야. 그러니 '이건 불법' 이라고 외우지 말고, 무엇이 쟁점인지를 알아 두는 게 맞아.

결과물만 보던 시절 vs 배운 것까지 보는 지금

AI 이전

· 둘을 나란히 놓고 닮았나 본다
· 쓰기 전에 미리 허락받는다
· 쌓인 판례로 기준이 또렷

→

AI 이후

· 결과물이 안 닮아도 다툰다
· 배움에 쓴 자료가 쟁점이 된다
· 나라마다 다르고 재판은 진행 중

왼쪽 기준이 사라진 건 아니야. 닮은 결과물은 지금도 그대로 문제가 돼. 오른쪽 칸이 새로 생겼을 뿐이야.

핵심: 결과물에 더해 '무엇으로 배웠나' 가 새 쟁점이 됐다

실험 · 전후 비교

AI 앞뒤로 무엇이 달라졌나

무엇을 비교하나

전

그림 두 장, 글 두 편을 나란히 놓고 닮았는지 봤어. 얼마나 비슷한가가 거의 전부였지.

후

결과물이 안 닮아도 다퉈. '만들기 전에 무엇으로 배웠나' 라는 질문이 새로 붙었거든.

눈에 안 보이는 단계를 따지게 됐어. 어려워진 이유가 딱 이거야.

허락은 누가 받나

전

쓰려면 먼저 물어봤어. 교과서에 시 한 편 싣는 것도 허락을 받고 값을 치르는 일이었어.

후

학습에 쓰는 자료가 너무 많아 일일이 허락받기 어렵다는 쪽과, 그래도 받아야 한다는 쪽이 부딪쳐.

유럽은 권리자가 미리 '학습에 쓰지 마' 라고 표시해 두면 빼도록 했고, 일본은 즐기려는…

답이 정해졌나

전

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판단했고, 오래 쌓인 판례 덕에 기준이 꽤 또렷했어.

후

미국·유럽·일본·한국이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중이고,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큰 재판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.

그래서 오늘 챙길 건 정답이 아니라 쟁점이야. 어느 쪽이든 단정하는 말을 만나면 한 번…

같은 질문을 'AI 이전' 과 'AI 이후' 로 번갈아 눌러 봐. 규칙이 사라진 게 아니라 따질 게 하나 늘어난 거야.

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· next-token.net/learn/day-37/

확인해보기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AI 이전에 '베꼈다' 를 판단한 기준은?

① 결과물이 얼마나 닮았나
② 누가 더 유명한가
③ 누가 먼저 올렸나
④ 값이 얼마나 비싼가

Q2 AI 이후에 새로 붙은 질문은?

① 그림을 몇 장 그렸나
② 만들기 전에 무엇으로 배웠나
③ 색을 몇 개 썼나
④ 몇 초 만에 만들었나

Q3 학습 데이터 다툼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?

① 전부 불법으로 정해짐
② 전부 합법으로 정해짐
③ 나라마다 다르고 진행 중
④ 아무도 다투지 않음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①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비슷한 정도를 봤어.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었지.

Q2

② 결과물이 안 닮아도, 배우는 데 남의 작품을 썼다면 괜찮은가를 다퉈. 이게 학습 데이터 논쟁이야.

Q3

③ 유럽·일본·미국·한국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, 큰 재판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정답을 외우는 대신 쟁점을 아는 게 맞아.

예전엔 결과물만 봤지만,
이제는 무엇으로 배웠는지까지 따져.



내일은 딥페이크 — 진짜처럼 보이는 얼굴과 목소리를, 단서로 가려내는 법.